



보도 일시	2022. 2. 4.(금) 08:30	배포 일시	2022. 2. 4.(금) 08:30
기획재정부 <총괄>	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	책임자	과 장 김영훈 (044-215-2730)
		담당자	서기관 김태웅 (kimtw41@korea.kr)

##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

□ 이덕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.4일(금) 08:0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」를 개최\*하여,

\* 과기정통부, 외교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참석

-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‘우크라이나 사태’와 관련하여 주요 동향 및 실물경제·금융시장 등 부문별 영향을 점검하고,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

※ (별첨) 이덕원 제1차관 모두발언



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**【 최근 동향 및 경제적 영향 】**

작년 11월 이후

러시아와 NATO가 러시아 접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미국은 파병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어 왔습니다.

최근 들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개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지고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동 이슈 관련 강경한 입장을 발표<sup>1)</sup>하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

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의 접경지역으로 지정학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세계 3대 곡창지대이자 러시아-유럽간 가스관이 경유하는 등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,

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은 에너지·원자재,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

먼저, 우크라이나의 곡물·에너지 분야 중요성을 감안시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됩니다. 실제 작년 12월 러시아-유럽 가스관중 하나인 야말 가스관이 차단되면서 유럽 역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사례<sup>2)</sup>도 있습니다.

또한, 美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,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과 맞물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상존해 있습니다.

정세불안이 글로벌 교역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1) 바이든 미 대통령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신속하고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(2.1, UN 안보리 관련 성명)  
푸틴 러 대통령, 우크라 NATO 가입 및 크림반도 탈환 시도시 전쟁불가피 경고(2.1, 러시아-헝가리 정상회담 기자회견)

2) 러시아 야말-유럽 가스관 공급 중단으로 유럽 천연가스 선물가격 역대 최고치(180€/Mwh, 12.21, 전일비 +23%) 기록

다만, 최근의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 
아직까지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.

먼저 최근 에너지,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<sup>3)</sup> 다소 확대되었으나,  
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,  
우리의 에너지 재고·비축 물량<sup>4)</sup> 등을 감안하면  
단기적으로 우리경제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금융시장 영향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.  
국내 금융회사의 對 러시아·우크라이나 익스포저 수준  
(전체 해외 익스포저 중 0.4%) 고려시  
우크라이나 사태發 우리 금융시장의 직접적 영향은  
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수출 등 실물경제는 전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 
최근 발표된 '22.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 
에너지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 
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 
수출은 전년대비 15.2% 상승하며  
1월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중입니다.  
특히 지역별로 보면 러시아 등이 포함된 對 CIS 국가 수출이 27.7% 증가하여  
전체 수출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<sup>5)</sup>,  
러시아·우크라이나와의 교역비중<sup>6)</sup> 등을 감안하면  
단기간내 정세불안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.

그러나, 향후 정세불안이 심화·장기화 될 경우  
원자재 등 공급망, 금융·실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 
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 
배제할 수 없는 만큼,  
각별한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 
우크라이나의 정세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 
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.

3) WTI(\$/b, NYMEX): (21.11월)78.7 (12월)71.7 (22.1월)83.0 (2.1일)88.2 (2.2일)88.3  
천연가스(\$/MMBTU, NYMEX): (21.11월)5.13 (12월)3.86 (22.1월)4.13 (2.1일)4.75 (2.2일)5.50  
알루미늄(\$/톤, LME): (21.11월)2,641 (12월)2,709 (22.1월)3,003 (2.1일)3,072 (2.2일)3,043  
옥수수(센트/부셸, CBOT): (21.11월)572 (12월)592 (22.1월)609 (2.1일)635 (2.2일)623

4) (에너지) 석유·천연가스 등 장기계약 중심 도입, 정부 비축유(IEA기준 107일분) 확보  
(곡물) 사료용 밀은 9~10월, 사료용 옥수수는 5~6월까지 필요한 물량 계약 완료

5) 지역별 수출 증가율('22.1월, %) : (전체) 15.2, (아세안) 28.9, (CIS) 27.7, (인도) 15.3, (EU) 13.3, (중국) 13.1, (미국) 1.6

6) 교역규모('21년): (러시아) 수출 1.5%, 수입 2.8% (우크라이나) 수출 0.1%, 수입 0.1%

## 【 향후 대응방향 】

이에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.

우선 지난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(녹실회의)를 통해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한바 있으며, 오늘 회의에서는 既 구축된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중심의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키로 하면서 TF 산하 공급망·실물경제·거시금융 등 점검반에서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단계별·분야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

우선 공급망 부문에서는 에너지 등 국제원자재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국내 비축유, 비철금속·희소금속 등 정부비축물량 재고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, 수급차질 발생시 비축유 긴급대여,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. 이외에도 러시아·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거나 대체가 어렵고 경제산업·국민생활 중요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실물경제 부문에서는 수출 애로 및 현지생산 차질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판로 및 금융지원, 현장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.

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내외 금융·외환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,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.

정부는 음일 논의 사항 및 향후 분과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 
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 
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 
2월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논의·확정할 예정입니다.

## 【 1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평가 】

이와 함께,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 
가장 먼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 
생활물가의 선제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방금 전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는  
작년 12월의 3.7% 대비  
0.1%p 낮아진 3.6% 상승하여  
2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소폭 둔화<sup>7)</sup>되는 모습입니다.

특히 1월은 연초에 제품·서비스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  
통상 전월비 상승률이 연중 가장 높은 달이며,  
설 명절수요 등 물가상방요인이 다수 존재하였습디만,

정부가 1.6일 발표한 '설 민생안정대책'에 따라  
역대 최고 수준(20.4만톤)의 성수품 공급 확대에 따라  
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대응한 결과  
전월비가 작년 1월의 0.7%보다 0.1%p 낮아진 0.6% 상승하여  
물가상승폭이 12월 대비 축소되었습니다.

1월 소비자물가 기여도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 
16대 성수품 가격안정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오름폭 둔화,  
작년 12월 국제유가 안정 영향 등에 따른 1월 석유류 가격안정 등  
공급측 요인 영향이 전월에 비해  $\Delta 0.4\%p$  감소하였으나,  
연초 외식 가격조정, 가공식품·내구재 가격인상 등  
개인서비스, 공업제품 등의 영향이 0.3%p 확대되었습니다.

7) 소비자물가상승률(%), 전년동월비, 11월→12월→1월): 3.8 → 3.7 → 3.6

2월은 명절수요 소멸 등 하방요인도 존재하나,  
국제유가 상승영향 국내 반영, 개인서비스·공업제품 상승세 지속 등  
상방요인이 강한 가운데  
국내 오미크론 변이양상이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

특히,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상승,  
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 
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정부는 대내외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 
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·수급불안  
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,  
설 이후에도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앞서 말씀드린대로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중심으로  
에너지·금속 등 단기 수급차질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,  
구조적인 국제원자재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 
최소금속 비축물량 확대(57→100일분),  
비철금속 품목별 목표 재고일수 상향조정(49→60일),  
주요곡물 비축 확대<sup>8)</sup> 및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 등  
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특히, 국제유가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그 동향에 따라  
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.

아울러 설 이후에도 생활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 
농축수산물 주요품목 수급관리 철저,  
가공식품, 외식업체 소통을 통한 인상시기의 연기/분산 유도,  
1분기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,  
물가상방압력 지속에 대비한 유통구조 개선 등  
구조적 물가안정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8) 밀/콩 비축물량(천톤) : ('20) 3/17 → ('22) 14/25

## 【 마무리 말씀 】

정부는 금년 완전한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 
1~2월 연초 리스크 관리 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하에

우크라이나 정세불안, 글로벌 공급망 차질,  
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 
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 
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을 확실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 
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.